

고학력 주부일수록 소비성향 높다

백화점 할인판매장에 몰린 주부들. 합리적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충동 구매하는 소비계층이 과소비를 주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대 강이주교수 서울거주 6백명 조사

소비생활을 주도하는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주부들일수록 '계획성 없고 충동적인 소비성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과소비추방 차원에서 건전소비교육이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천대 강이주 교수(가정관리학)는 4일 한국소비자학회에 보고한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에 관

지위획득을 중시하는 소비지향적 집단으로, 생활비 가운데 교양·오락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물건을 살 때 품질이나 수명보다는 유행·모양·상표이름 등을 더 따진다. 또한 책을 도서관 등에서 빌려보기 보다는 직접 사기를 좋아하는 식으로, 물건의 실용적인 사용에 앞서 강한 개인 소유

한 보상심리 때문에 소비지향성이 높아 이들을 포함하면 60%에 가까운 편의주의형 소비계층이 우리사회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편의주의형 소비자들은 무분별한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계층

40%가 품질보다 유행·상표이름 중시 무분별한 소비...계층간 위화감만 조성

한 연구'에서 서울에 사는 주부 6백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절약과 합리적 구매 보다는 유행과 편리함을 쫓는 이른바 편의주의형 소비계층이 40% 정도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 다른 집단의 모방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편의주의형 주부들은 외식을 즐기고 내면 가치보다는 사회적

의식을 보이고 있다.

쓰던 물건을 버릴 때에도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싫증이 나거나 유행에 뒤졌다는 이유가 많고, 그나마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주거나 재활용하기 보다는 무작정 내버리고 있어 우리 사회 과소비의 주범임을 확인시켜 준다.

낮은 교육수준과 저소득으로 불안정한 경제생활을 하는 약 20%의 이른바 생존유지형 계층 또

사이의 위화감 등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교수는 "편의주의형과는 달리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과 계획에 따라 건전하게 소비하는 근면성실형과 성취동기형의 주부도 적지 않다"고 밝히고, "전사회적으로 이러한 소비성향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전통생활양식과 내면 가치를 추구하며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는 근면성실형과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새로운 일에도 전하는 진보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의 성취동기형이 각각 30% 12%를 차지하는 이번 연구결과는 "건전소비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물건을 혼자서 많이 갖기보다는 함께 나누어 쓸으로써 효용가치를 높이는 소비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소비자교육의 구체적 방향으로 △공동세탁장·공동놀이방·대출도서관·대여용품 이용 △임대나 공동소유·공동 구매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 단위의 공공시설이나 물품 생산 확대·임대 산업활성화 등의 정책적 배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승 기자〉